

# The Harvest

하베스트국제사역원  
선교사연장교육원 소식지  
2024.11월 Vol 4.

하베스트국제사역원 선교연장교육원

## 11월 강의안내

### 강의일정

| 강 의 명                       | 교 수 | 강 의 기 간         | 시 간              | 수강료            |
|-----------------------------|-----|-----------------|------------------|----------------|
| 바울서신의 구약인용                  | 박성수 | 연중              | 목 오후 2시          | -              |
| 사사기 전공                      |     | 연중              | 주일 오후 8시         | -              |
| 치유기도 선교                     | 장성천 | 연중              | 목 오전 10시30분      | -              |
| 디지털시대와 선교(3기)               | 안정위 | 연중              | 목 오후 8시-9시30분    | -              |
| 헬라어 왕초보                     | 김재수 | 연중              | 수 오후 1시-2시       | -              |
| 누가복음 강독                     |     | 연중              | 수 오후 2시          | -              |
| 성경속으로 걸어가기<br>(구약역사정리)      | 성용오 | 10. 30 ~ 11. 27 | 수 오후 8시30분-9시30분 | 3만원            |
| 공동체 비전스쿨 30기                | 김현진 | 10. 31 ~ 12. 26 | 목 오후 8시          | -              |
| 디지털시대와 선교(3기)               | 안정위 | 12. 14 (총강)     | 목 오후 8시          | -              |
| 성서 히브리어 기초문법 II             | 강신일 | 11. 8 ~ 11. 29  | 금 오후 4시-5시30분    | -              |
| 사도신경                        | 구본식 | 11. 15 ~ 25.1.3 | 금 오후 9시          | -              |
| 회복적 삶-회복탄력성 집단              | 오주현 | 11. 12 ~ 12.10  | 화 오후 1시-3시       | 5만원            |
| 가족치유/사람의존성 치유               | 오광복 | 11. 11 ~ 12.30  | 월 오후 9시-11시      | 3만원            |
| 가족성장상담<br>-성격유형(MBTI)와 인간이해 | 이은경 | 11.15 ~ 12. 27  | 금 오후 9시-11시      | 3만원<br>(부부4만원) |
| 리더십과 기도상담_네가지 음성            | 이도희 | 11.05 ~ 11. 26  | 화 오전 10시         | -              |
| 주님의 기를 부으심                  | 정 일 | 11.04 ~ 12. 23  | 월 오후 8시-10시      | 5만원            |
| AI 그림테라피                    | 서금순 | 11.08 ~ 12.06   | 금 오후 7시-8시30분    | 5만원            |
| 성경 속 향유 2기                  | 최미경 | 10.22 ~ 11. 26  | 화 오후 8시-10시      | 별도신청           |

### 수강신청 시 참고사항

- ▶ 강의 시간은 한국시간 기준입니다
- ▶ 수강료 표시가 없는 강의는 무료 강의입니다
- ▶ 수강료 입금계좌: 카카오�뱅크 7979-4084-345 한정원(납부자이름+과목명 기입)
- ▶ 강의신청 <https://harvest-mission.com/>

# 목 차

- ✓ 하베스트국제사역원 선교사연장교육원 강의 수강 안내 3
- ✓ 11월 선교사연장교육원 오픈 강의 목록 5
- ✓ 선임 선교사와의 팀 사역 9
- ✓ 성령님과 품성 개발 12
- ✓ 새로운 창조를 표현하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마 1:1) 17
- ✓ 무슬림 복음 전도에서 '문화 변용' 문제 22
- ✓ 선교사 존 하이드의 생애와 사역 25
- ✓ 순교의 영성 32
- ✓ 네팔에서 마지막 삶을 다한 민영미 선교사를 추모하며 40



## 하베스트국제사역원 선교사연장교육원 OPEN 강의 수강 안내

- ※ 하베스트국제사역원 선교사연장교육원의 모든 강의는 선교사님, 목사님, 그리고 복음주의 신앙을 더 넓고, 깊게 배우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 ※ 이미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박사학위자로 활동하시는 교수님들을 통해서 정규신학대학교에 못지않은 강의를 시간, 공간, 재정의 구애를 받지 않고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하베스트국제사역원 홈페이지에 오시면 현재 진행되는 다양한 강좌들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미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베스트국제사역원 선교사 연장교육원이 제공하는 섬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 강의 신청 방법  
홈페이지 <https://harvest-mission.com/> 를 방문하셔서 강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QR을 찍으면 자동으로 학교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강의 신청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전체 21건

|                                                                                                                                                                                                                                                                           |                                                                                                                                                                                                                                                                              |                                                                                                                                                                                                                                                     |                                                                                                                                                                                                                                                  |
|---------------------------------------------------------------------------------------------------------------------------------------------------------------------------------------------------------------------------------------------------------------------------|------------------------------------------------------------------------------------------------------------------------------------------------------------------------------------------------------------------------------------------------------------------------------|-----------------------------------------------------------------------------------------------------------------------------------------------------------------------------------------------------------------------------------------------------|--------------------------------------------------------------------------------------------------------------------------------------------------------------------------------------------------------------------------------------------------|
|  <p><b>신행동</b></p> <p>성경으로 교수의<br/>열왕기와 선지서</p> <p><b>열왕기와 선지서 정리</b><br/>구약성경 열왕기서와 선지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남과...</p> <p>☎ 2024.07.01 - 2024.08.31<br/>☎ 성동우 교수<br/>☎ 중 교육</p> |  <p><b>신행동</b></p> <p>순교자의 영성</p> <p><b>순교자의 영성</b><br/>순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영혼으로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할지...</p> <p>☎ 2024.07.01 - 2024.08.07<br/>☎ 정달수 교수<br/>☎ 중 교육</p>                       |  <p><b>신행동</b></p> <p>리더십과 기도상담</p> <p><b>리더십과 기도상담</b><br/>크리스찬 리더로서 복음에 관한 성경적 태도를 세우며, 침묵 기도로써 가장 불행하...</p> <p>☎ 2024.08.01 - 2024.08.31<br/>☎ 이두희<br/>☎ 중</p> |  <p><b>신행동</b></p> <p>1일영성훈련</p> <p><b>1일영성훈련</b><br/>하나님을 사랑하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치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영적 성장...</p> <p>☎ 2024.08.01 - 2024.08.31<br/>☎ 이두희<br/>☎ 중</p> |
|  <p><b>신행동</b></p> <p>무슬림 복음전도에서 우리의 질문</p> <p><b>무슬림 복음전도에서 우리의 질문</b><br/>장외적 접근이 필요한 전 세계 무슬림 복음전도 사역 현장에서 우리의 복음전도...</p> <p>☎ 2024.08.01 - 2024.08.31<br/>☎ 김우철 교수<br/>☎ 중 교육</p>  |  <p><b>신행동</b></p> <p>심대의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AF)</p> <p><b>심대의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AF)</b><br/>여름과 드래곤볼스 이론을 바탕으로 매 이틀 한번이었던 부모교육 과정을 마...</p> <p>☎ 2024.08.01 - 2024.08.05<br/>☎ 우주현 교수<br/>☎ 중 교육</p> |  <p><b>상시</b></p> <p>성서속 향유</p> <p><b>성서속 향유</b><br/>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드린 물약을 제형해 사세요.</p> <p>☎ 최미경 교수<br/>☎ 중 온라인</p>                                              |  <p><b>상시</b></p> <p>헬리어 기초</p> <p><b>헬리어 기초</b><br/>6주간 헬리어 기초 발음, 헬리어 현재 영감 문법 (유관영성 영감) 학습하여 헬리어...</p> <p>☎ 김재수 교수<br/>☎ 중 교육</p>                        |
|  <p><b>상시</b></p> <p>치유기도 선교</p> <p><b>치유기도 선교</b><br/>바른 기도, 기도의 능력, 기도 사역을 통해 무능의 강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p> <p>☎ 장성진 교수<br/>☎ 중 교육</p>                                                   |  <p><b>상시</b></p> <p>바울서신의 구약 인용</p> <p><b>바울서신의 구약 인용</b><br/>신약성경과 바울서신 중에 구약인용 본문을 갖고 있는 헬리어 학문을 다루어...</p> <p>☎ 박성수 교수<br/>☎ 중 교육</p>                                                 |  <p><b>상시</b></p> <p>아시아 교회사</p> <p><b>아시아 교회사</b><br/>아시아 교회의 태동, 성장, 그리고 현재를 볼 수 있습니다.</p> <p>☎ 최아영 교수<br/>☎ 중 교육</p>                                          |  <p><b>상시</b></p> <p>가족치유상담지도자</p> <p><b>가족치유상담지도자</b><br/>많은 사람이 상처와 치유와 회복 없이 가정을 돌보며, 교회사역, 선교사역을 하지...</p> <p>☎ 우관복 이은경 교수<br/>☎ 중 교육</p>               |

## 11월 하베스트국제사역원 선교사연장교육원 오픈강의 목록

좋은 강의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과 참여 바랍니다.

박성수 교수

강좌명 : 바울서신의 구약인용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강좌명 : 사사기 전공

일 시 : 매주 주일 오후 8시

<https://open.kakao.com/o/gKBa3Lhd>

장성천 교수

강좌명 : 치유기도 선교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https://open.kakao.com/o/gHK7YYAd>

안정위 교수

강좌명 : 디지털시대와 선교(3기)

일 시 : 매주 목요일 8시 (12월 14일 종강)

<https://open.kakao.com/o/gbMrFR0f>

김재수 교수

강좌명 : 헬라어 왕초보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2시

강좌명 : 누가복음 강독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3시

<https://open.kakao.com/o/gJJKOJud>

성용오 교수

강좌명 : 성경속으로 걸어가기(구약역사정리)

일 시 : 10월30일-11월27일 / 매주 수요일 저녁후8시30분 / 3만원

<https://open.kakao.com/o/gJVt6xuf>

서금순 교수

강좌명 : AI 그림 테라피

일 시 : 11월08일-12월06일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8시30분

수강료 : 5만원

<https://open.kakao.com/o/g1qi1gnd>

어미선 선교사

강좌명 : 책 읽기를 통한 치유

일 시 : 10월11-11월8일 / 매주 금요일 저녁 9-11시

<https://open.kakao.com/o/g40kmyPg>

최미경 교수

강좌명 : 성경 속 향유 2기

일 시 : 10월22-11.26/ 매주 화 저녁8-10시

<https://m.site.naver.com/1ulgd>

정일 교수

강좌명 : 주님 능력의 기름부으심

신청기간 : 10월14일-10월25일까지 (40명 선착순 마감)

일 시 : 11월4-12월23일 / 매주 월요일 저녁 8시-10시

강의료 : 5만원

<https://open.kakao.com/o/gqppFCmg>

이도희 교수

강좌명 : 리더십과 기도상담-네 가지 음성

일 시 : 11월05일-11월25일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https://open.kakao.com/o/gHs19rHg>

구본식 교수

강좌명 : 사도신경

일 시 : 11월15일 ~2025년1월3일 / 매주 금요일 저녁 09시

<https://open.kakao.com/o/gNTN65fd>

김현진 교수

강좌명: 공동체 비전스쿨 30기

일시: 10월31일-12월26일 /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수강료: 10만원

<https://open.kakao.com/o/g3YUpyRd>

강신일 교수

성서 히브리어 기초문법 I - 녹화영상강의 (상시)

신청 : <https://bit.ly/3v25Kxj>

성서 히브리어 기초문법 II - 줌강의 (약동사 위주)

일시: 11월08일-11월29일 / 금요일 오후 4시

신청 : <https://bit.ly/3I4cvpR>

<https://open.kakao.com/o/gipBwxEd>

오주현 교수

강좌명 : 회복적 삶 - 회복탄력성 집단

일 시 : 11월 12일(화) ~ 12월 10일(화)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3시

수강료 : 5만원 (5명 미만일 경우 폐강합니다.)

<https://open.kakao.com/o/gUKWBsHg>

이은경 교수

강좌명 : 가족 성장 상담-성격 유형(MBTI)와 인간 이해

신청기간 : 10월19일 - 11월/9일

일시 : 11월15일-12월27일 / 매주 금요일 오후9-11시

강 의 료 : 3만원(부부 4만원)

문 의 : 오픈 채팅방 주소

<https://open.kakao.com/o/gHuPMAge>

오광복 교수

강좌명 : 가족치유상담 - 사람 의존성치유-하나님께 바로서기

신청기간: 10월19일-11월9일 /

교육일정: 11월11일- 12월30일 / 매주 월요일 오후9-11시

강 의 료 : 3만원(부부4만원)

문 의 : 오픈 채팅방 주소

<https://open.kakao.com/o/gHuPMAge>

## 아빠 선교사가 선교사를 준비하는 딸에게 (4)

### 선임 선교사와의 팀 사역

이요셉 선교사

사랑하는 딸에게,

아빠는 먼저 있던 선교지에서 여러 차례 선임 선교사님과 함께 팀으로 사역하며 많은 것을 배웠어. 무엇보다도 각자의 은사와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 조율하며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단다. 처음부터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기존에 선임 선교사님이 계신 곳에 합류할 때는 어떤 역할로, 어떤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을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팀 사역은 분명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도전도 따른단다. 같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너도 들어봤을 거야.





아빠 역시 선임 선교사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헌신과 리더십을 배우며 많은 점을 느꼈지만,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소통할 시간을 더 가졌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도 남아.

한국에서는 윗사람이 명확한 지시를 내리기보다는 묵묵히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교지에서도 이런 방식이 이어질 때가 많더구나. 특히 한국적인 전통 상하관계가 팀 사역에서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아빠는 선교팀에서 명확한 매뉴얼이 준비되면, 소통이나 역할 분담이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해. 이렇게 하면 서로의 기대를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거야.

선교지에서는 종종 선임 선교사와 후임 선교사 간의 관계가 교회의 담임목사와 부목사처럼 형성될 때가 있는데, 이런 관계는 팀 사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봐. 팀 사역은 모두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일해야 하고, 후임 선교사로서 중요한 점은 선임 선교사님의 사역과 리더십을 존중하며 선불리 판단하지 말고 그분의 헌신적 삶을 먼저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야.

또한, 한국 선교사들끼리의 사역은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아. 유교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사역하다 보니, 팀 사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 너도 들어서 알겠지만, 한국 선교사들은 독립적으로 사역하는 데에 탁월하지만, 현지인이나 다른 동료 선교사들과 팀을 이루어 일할 때는 자주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혼자보다는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 사역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단다. 팀 사역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어.

아빠가 돌아보면 팀 사역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라포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어.

그래서 무언가를 계획할 때는 반드시

선임 선교사님과 의논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미리 소통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팀 사역을 시작할 때는 자신이 팀에서 기대하는 바와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고 싶은지를 명확히 논의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야. 선교사도 완벽할 수 없고, 다들 성숙한 상태로 사역하는 것은 아니니 갈등이 생길 수 있어.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지도자로서 성장할 기회도 얻게 된다고 생각해.

너도 팀 사역을 하게 될 텐데, 가능하다면 선임 선교사님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그분의 장점들을 배우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어. 선임 선교사님의 장단점을 보게 될 텐데, 장점은 배우고 보완할 점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아빠가.



#### 이요셉 선교사

부인 고루스 선교사와 함께 1999년  
카자흐스탄에 파송을 받아 사역하다  
2008년 사역지를 인도 콜카타로 옮겨 사역하고 있다.  
자녀(예희, 예원, 경빈) 중 예희 자매는  
WMTC에서 훈련을 받은 후 선교사로 헌신한  
형제와 내년 5월 결혼한 후 파송을 받아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갈 예정으로 현재 준비중이다.

## 성령님과 품성 개발

이성상 총장

성령님은 품성 개발(Character Development)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인간의 성품(Nature)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의 성품에서 의의 성품으로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칭의(Justification)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인간은 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간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데 이것을 성화(Sanctification)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을 닮도록 빛으십니다. 인간의 영적 변화의 삶은 단순히 도덕적 교양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순종하여 끊임없는 영적 성장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여정을 품성 개발이라고 합니다.



품성을 계발하는 데 있어 성령님의 역할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화, 성령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능력입니다.

첫 번째로, 품성 계발에 있어서  
성령님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성령님의 내주(Indwelling of the Holy Spirit)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게 됩니다. 이 내주하심은 단순히 우리의 영적 생명의 시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하심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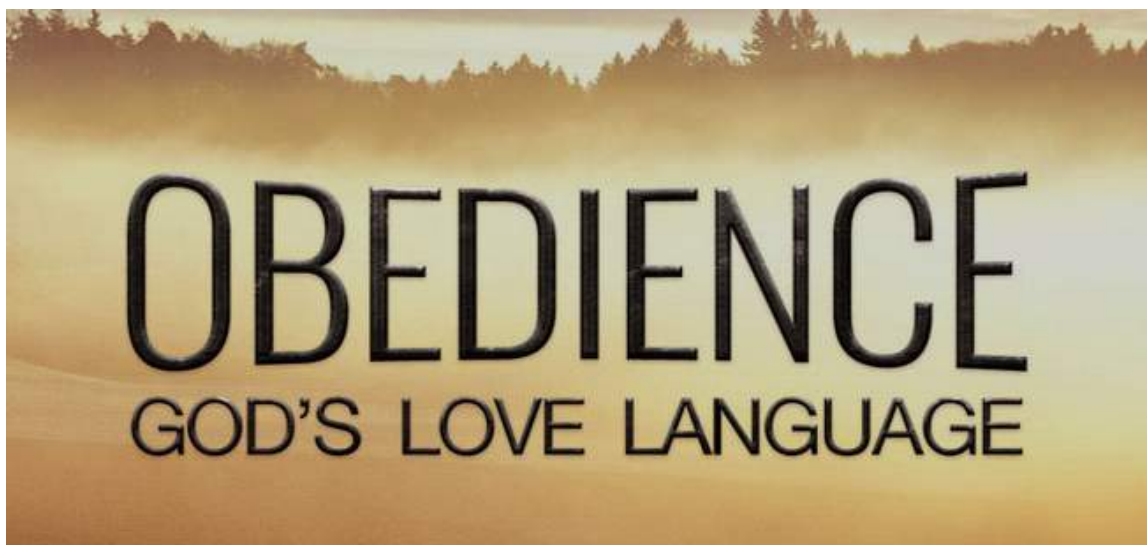
**You, however, are controlled not by the sinful nature  
but by the Spirit, if the **Spirit of God** lives in you.  
And 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he  
does not belong to Christ.**



성화(Sanctification)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죄악 된 본성을 다루시며,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인간은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내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모시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화는 단번에 완성 되지 않고 일생에 걸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요청과 순종입니다. 성령님은 강제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시며,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화나 분노를 다룰 때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에서 차분함과 온유함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온유함을 품성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며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두 번째로, 품성 계발의 중심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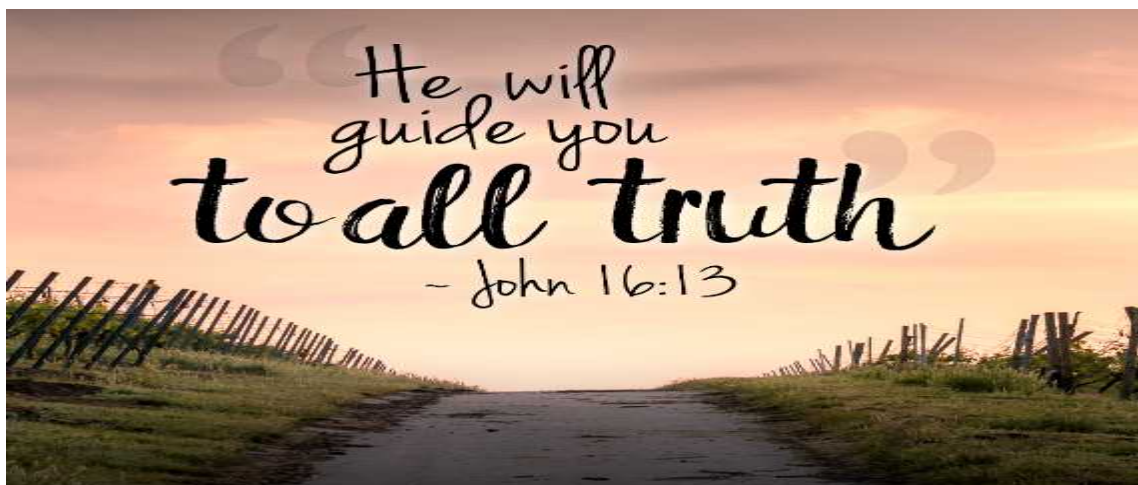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는 단순히 외적인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 주심으로 열매 맺는 품성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이끌어 주신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

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세 번째로, 품성 계발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시며,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심은 품성 계발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자주 감정이나 욕망에 따라 행동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그러한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력은 품성 계발에 필수적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연약한 본성은 쉽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성령님이 우리의 내적 사람을 강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품성 계발(character development)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은 필수적입니다.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 인간의 성품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와 능력 주심으로 예수님을 닮은 품성의 삶으로 성화가 이루어져 갑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며,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며,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과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품성 계발은 성령님과 깊은 동행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평생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 이성상 총장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선교학 선교학박사(D. Miss)

Asia Seminary of Leadership 교육학 철학박사(Ph.D)

기독교대한감리회 파송 선교사로 스리랑카와 태국에서 30년 넘게 사역하고 있으며, 현재 하베스트국제사역원, 태국 품성 계발연구원, 치앙마이 선교센터를 설립하여 선교사들의 영성, 지성, 품성을 위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 새로운 창조를 표현하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마 1장1절)

김재수 교수

마태복음의 첫 문장은 신약의 첫 문장이다. 물론 신약은 한 권의 책이라고는 하지만 복수의 저자가 쓴 27권의 책으로 구성되었다. 필자는 마 1:1의 전반부는 마태 복음 전체와 연관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신약 전체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초대교회 시대는 구전 전승 시대라서 청중은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듣고서 이해해야 하는 시대이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수사학이 발달한 사회였다. 수사학이란 듣는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 시키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 1:1 전반부의 수사학적 기능은 무엇이며, 이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서 해결할 과제이다.

| NRSV                                                                                                                                                                                                                                                                                                                                                                                                                                                                                                                                                                                                                                                                                                                                                                                                                                                                                                                                                                                        | Matthew 1:1-17                                                                                                                                                                                                                                                                                                                                                                                                                                                                                                                                                                                                                                                                                                                                                              | NIV                                                                                                                                                                                                                                                                                                                                                                                                                                                                                                                                                                                                                                                        |
|---------------------------------------------------------------------------------------------------------------------------------------------------------------------------------------------------------------------------------------------------------------------------------------------------------------------------------------------------------------------------------------------------------------------------------------------------------------------------------------------------------------------------------------------------------------------------------------------------------------------------------------------------------------------------------------------------------------------------------------------------------------------------------------------------------------------------------------------------------------------------------------------------------------------------------------------------------------------------------------------|-----------------------------------------------------------------------------------------------------------------------------------------------------------------------------------------------------------------------------------------------------------------------------------------------------------------------------------------------------------------------------------------------------------------------------------------------------------------------------------------------------------------------------------------------------------------------------------------------------------------------------------------------------------------------------------------------------------------------------------------------------------------------------|------------------------------------------------------------------------------------------------------------------------------------------------------------------------------------------------------------------------------------------------------------------------------------------------------------------------------------------------------------------------------------------------------------------------------------------------------------------------------------------------------------------------------------------------------------------------------------------------------------------------------------------------------------|
| <i>The Genealogy of Jesus the Messiah</i>                                                                                                                                                                                                                                                                                                                                                                                                                                                                                                                                                                                                                                                                                                                                                                                                                                                                                                                                                   | KATA ΜΑΘΘΙΑΟΝ                                                                                                                                                                                                                                                                                                                                                                                                                                                                                                                                                                                                                                                                                                                                                               | <i>The Genealogy of Jesus</i>                                                                                                                                                                                                                                                                                                                                                                                                                                                                                                                                                                                                                              |
| <p><b>1</b> An account of the genealogy<sup>a</sup> of Jesus the Messiah,<sup>b</sup>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p> <p>2 Abraham was the father of Isaac, and Isaac the father of Jacob, and Jacob the father of Judah and his brothers,<sup>3</sup> and Judah the father of Perez and Zerah by Tamar, and Perez the father of Hezron, and Hezron the father of Aram, <sup>4</sup>and Aram the father of Aminadab, and Aminadab the father of Nahshon, and Nahshon the father of Salmon,<sup>5</sup> and Salmon the father of Boaz by Rahab, and Boaz the father of Obed by Ruth, and Obed the father of Jesse, <sup>6</sup>and Jesse the father of King David.</p> <p>And David was the father of Solomon by the wife of Uriah,<sup>7</sup> and Solomon the father of Rehoboam, and Rehoboam the father of Abijah, and Abijah the father of Asaph,<sup>c</sup> <sup>8</sup>and Asaph<sup>c</sup> the father of Jehoshaphat, and Jehoshaphat the father of Joram, and Joram</p> | <p><b>1</b> Βίβλος γενέσ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υἱοῦ Δαυὶδ υἱοῦ Ἀβραάμ.</p> <p>2 Ἀβραάμ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σαάκ, Ἰσαάκ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ακώβ, Ἰακώβ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ούδαν καὶ τοὺς ἀδελφοὺς αὐτοῦ, <b>3</b> Ἰούδας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Φάρες καὶ τὸν Ζάρα ἐκ τῆς Θαμάρ, Φάρες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Ἑσρώμ, Ἑσρώμ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Ἀράμ, <b>4</b> Ἀράμ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Ἀμιναδάβ, Ἀμιναδάβ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Ναασσών, Ναασσών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Σαλμών, <b>5</b> Σαλμών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Βόες ἐκ τῆς Ραχάβ, Βόες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ωβὴδ ἐκ τῆς Ρούθ, Ἰωβὴδ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εσσαί, <b>6</b> Ἰεσσαί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Δαυὶδ τὸν βασιλέα.</p> <p>Δαυὶδ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Σολομῶνα ἐκ τῆς τοῦ Οὐρίου, <b>7</b> Σολομῶν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Ροβοάμ, Ροβοάμ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Ἀβιά, Ἀβιά δὲ ἐγέννη-</p> | <p><b>1</b> A record of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p> <p><sup>2</sup>Abraham was the father of Isaac, Isaac the father of Jacob, Jacob the father of Judah and his brothers, <sup>3</sup>Judah the father of Perez and Zerah, whose mother was Tamar, Perez the father of Hezron, Hezron the father of Ram, <sup>4</sup>Ram the father of Amminadab, Amminadab the father of Nahshon, Nahshon the father of Salmon, <sup>5</sup>Salmon the father of Boaz, whose mother was Rahab, Boaz the father of Obed, whose mother was Ruth, Obed the father of Jesse, <sup>6</sup>and Jesse the father of King David.</p> |

마 1:1 의 전반부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크리스투이다. 이에 대한 한글 번역은 다음과 같다.

헬라어 원문 :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크리스투

(Βίβλος γενέσ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개역개정 :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른성경 :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필자의 대체역 :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 창조에 관한 책이다.

## 단어와 문장론 연구

### Βίβλος. 비블로스

하나의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책을 말한다. 단순한 하나의 문서를 지칭하는 단어는 비블리온 이다. 이는 비교적 긴 문서를 지칭할 때도 있다. 따라서 이 단어는 마태복음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 γενέσεως. 게네세오스 (원어는 게네시스)

출생, 존재, (개인의) 역사, 가계 등의 의미가 있다. 리델 스캇 헬라어 사전에 의하면, 게네시스 는 기원, 출생, 세대, 창조, 종류 등을 포함한다. 70인 역에서는 구약의 창세기를 게네시스 γένεσις 라고 기록하고 있다.

### Ἰησοῦ. 예수

게네세오스가 족보로 해석될 땐 예수는 목적격 속격으로서 《예수에 대한 족보의 기록》으로 번역되며, 창조로 해석될 땐 예수는 주격적 속격으로서 《예수께서 시작하신 창조의 기록》으로 번역된다.

### Χριστοῦ. 크리스투

이는 헬라어 예수의 단순속격동격으로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확인한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크리스투 Βίβλος γενέσ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의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 마 1:1에 대해서 족보의 기록 (1:1-17에 대한 제목 혹은 서문), 기원의 기

록 (1:1-2:23에 대한 제목 혹은 서문) 혹은 역사의 기록 (마태복음 전체의 제목 혹은 서문) 등으로 학자들은 서로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한글 번역과 영어 번역들도 《예수 그리스도 족보의 세계》 혹은 이와 비슷하게 번역하였다. 여기서는 이 구절이 성경에 어떤 경우에 사용되었는가를 우선 조사하겠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Βίβλος γενέσεως) 란 표현은 70인 역에서 두 번 즉 창 2:4 와 5:1에서 창조와 관련하여 나타난다. 후자는 인류의 창조를 시사하는 “아담 자손의 계보”라는 표현에서, 전자는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란 표현에서 등장한다. 이를 고려하면, 구약을 잘 알고 있는 그의 독자들에게, 마태는 이 용어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창조와 아담과 같은 사건의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부각하게 시킨다.

|           |              |                |             |                  |          |           |
|-----------|--------------|----------------|-------------|------------------|----------|-----------|
| 430 [e]   | 1254 [e]     | 3117 [e]       | 121 [e]     | 8435 [e]         | 5612 [e] | 2088 [e]  |
| 'ē-lō-hīm | bə-rō        | bə-yō-wm,      | 'ā-dām,     | tō-wl-dōt        | sē-ṣer,  | zeh       |
| אלהים     | בְּרֹא       | בַּיּוֹם       | אָדָם       | תּוֹלְדֹת        | סֵפֶר    | זֶה       |
| God       | that created | In the day     | of Adam     | of the genealogy | the book | This [is] |
| N-mp      | V-Qal-Inf    | Prep-b   N-msc | N-proper-ms | N-fpc            | N-msc    | Pro-ms    |

|               |                |           |                 |         |
|---------------|----------------|-----------|-----------------|---------|
| 853 [e]       | 6213 [e]       | 430 [e]   | 1823 [e]        | 120 [e] |
| 'ō-tōw.       | 'ā-sāh         | 'ē-lō-hīm | biḡ-mūt         | 'ā-dām, |
| אֵתוֹ         | עָשָׂה         | אלהים     | בְּדִמּוּת      | אָדָם   |
| him           | He made        | of God    | in the likeness | man     |
| DirObjM   3ms | V-Qal-Perf-3ms | N-mp      | Prep-b   N-fsc  | N-ms    |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관련된 창조를 19:28에서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마태는 《새 세상》이란 의미로 팔링게네시아 (παλιγγενεσία)를 사용하였는데, 이 단어는 “다시”라는 의미가 있는 팔린 πάλιν 과 창조라는 의미가 있는 게네시스 γένεσις라는 단어로 구성된 합성어이다. 실제로 바울은 고전 15:45에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갈 6:15에서는 새 창조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마 1:1은 문법적으로 “예수”를 주격적 속격으로 간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 창조의 책”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 따라서 마 1:1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창조

를 시사하는 표현이며, 마태복음이 신약에서 구약의 창세기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기록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를 위하여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창세기의 부분을 직접 인용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의 영향을 받은 사건들과 스타일들을 사용하였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의 독자가 유대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마태는 예수님의 사건이 구약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사건은 창조와 아담의 사건들과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블로스 계네세오스 Βίβλος γενέσεως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질 수 있다.

이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태가 사용한 하나의 수사학적 기법이다. 따라서 이 중요한 헬라어 구는 이 단어의 중요성 때문에 신약에서 제일권으로 채택되도록 한 핵심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헬라어 사전적으로도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게네세오스 (γενέσεως) 가 사용된 마 1:1 은 대부분의 한영 성경에는 예수님의 족보 혹은 이와 유사하게 번역되었다. 이는 오역이 아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사용된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Βίβλος γενέσεως 는 마태가 그의 문서를 기록할 당시의 예수란 주제는 아담과 창조와 같은 중요한 주제임을 시사한다. 그 이유는 이 구절이 창조와 관련된 창 2:4 와 아담과 관련된 창 5:1 에서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 1:1은 족보의 개념과는 달리 번역될 수도 있다.

따라서 마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족보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새로운 창조자로서 그의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Βίβλος γενέσ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크리스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의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 창조의 책”이란 서두로 기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마태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자기 독자들에게 새로운 창세기 즉 구원의 역사의 시대의 도래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구절의 중요성과 구약과의 관련성으로 인해서 마태 복음을 신약에서 제 일 권으로 두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김재수 교수

남아공 스텔렌보쉬 대학교(Ph.D 신약)

현재 남아공에서 신학 강의와 교회개혁 사역을 하고 있으며

남아공 희망봉 신학교, 하베스트국제사역원 선교사연장교육원의 신약학 교수로 섬기고 있다.

## 무슬림 복음 전도에서 '문화 변용' 문제

김종일 교수

문화 변용(cultural appropriation)은 한 문화 또는 그 구성원들이 다른 문화의 요소들을 인수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현상은 종종 예술, 신앙, 상징, 언어, 행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볼 수 있다.

문화 변용은 매우 복잡한 현상이며, 다양한 맥락과 상황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문화 변용이 문제가 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권력의 불균형'이다. 종종 지배적 문화나 더 큰 권력을 가진 집단이 소수 문화의 특정 요소들을 인용하면서 그 원래의 의미나 맥락을 무시하거나 왜곡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한 민족의 전통 복장(이슬람 여성의 히잡 등)을 패션쇼나 할러윈 의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그 복장이 가진 원래의 문화적, 종교적 의미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문화 변용’은 해당 문화의 구성원들이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원주민(국내 이주민) 그룹의 전통적 패턴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어 판매될 때, 그 수익이 원주민 커뮤니티에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모든 문화의 교류나 영향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문화 간의 상호 작용은 종종 창의적인 표현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출현을 촉진할 수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각 문화의 가치와 의미가 존중받고, 권리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문화 변용에 대한 논의는 감수성, 상호 존중, 그리고 권력관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접근할 때는 해당 문화의 구성원들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권리와 전통을 어떻게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독교 선교와 복음 전파 과정에서 문화 변용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선교는 단순히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 ‘문화 변용’에서 분리 또는 구별되어야 하는 사례

‘문화 변용’에 따라서 기독교 복음을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와 이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주민을 이웃 삼아 사역하는 과정에서 ‘문화 변용’의 문화적 또는 동화나 통합과 달리 분리 또는 구별되어야 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기독교 선교와 복음 전파 과정에서 문화 변용을 고려하여 분리 또는 구별을 유지해야 하는 사례는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접근은 특히 타 종교와의 명확한 구분을 유지하며 동시에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다음은 그런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예시이다.

**종교적 상징과 의례의 구별:** 다른 종교의 상징이나 의례를 기독교 예배나 실천에 통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슬람의 특정 상징물을 기독교 예배에 포함하는 것은 두 종교 간의 신학적 차이를 흐릴 수 있으며, 둘 다의 신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각 종교의 핵심적 신념과 실천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며, 서로의 고유한 신앙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복음 전도 시 문화적 감수성 유지:** 기독교 전도를 할 때 다른 종교의 중요한 날이나 축제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예를 들어, 라마단 기간 모슬렘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든지 ‘역 라마단’ 운동 같은 기도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교적 접근 전략에서 다분히 민감할 수 있다. 이는 그들의 종교적 의무와 신앙심을 존중하는 태도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이슬람교의 중요한 명절 기간에 전도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이다.

**교회 설립과 공동체 형성:** 기독교 공동체나 교회를 현지 문화와 완전히 통합하기보다는, 때로는 그들의 고유한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이주민 언어그룹을 대상으로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할 수 있다.

**문화적 정체성과 종교적 신념의 구별:** 종종 이주민 커뮤니티에서는 문화적 정체성과 종교적 신념이 깊게 연결되어 있다. 선교 활동 중에는 이러한 정체성을 존중하면서도, 기독교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가족 가치나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면서도 복음의 변혁적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은 문화적 동화와는 다르게 각각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 변용을 고려한 선교 활동은 각 문화의 독특함과 종교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복음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균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민감성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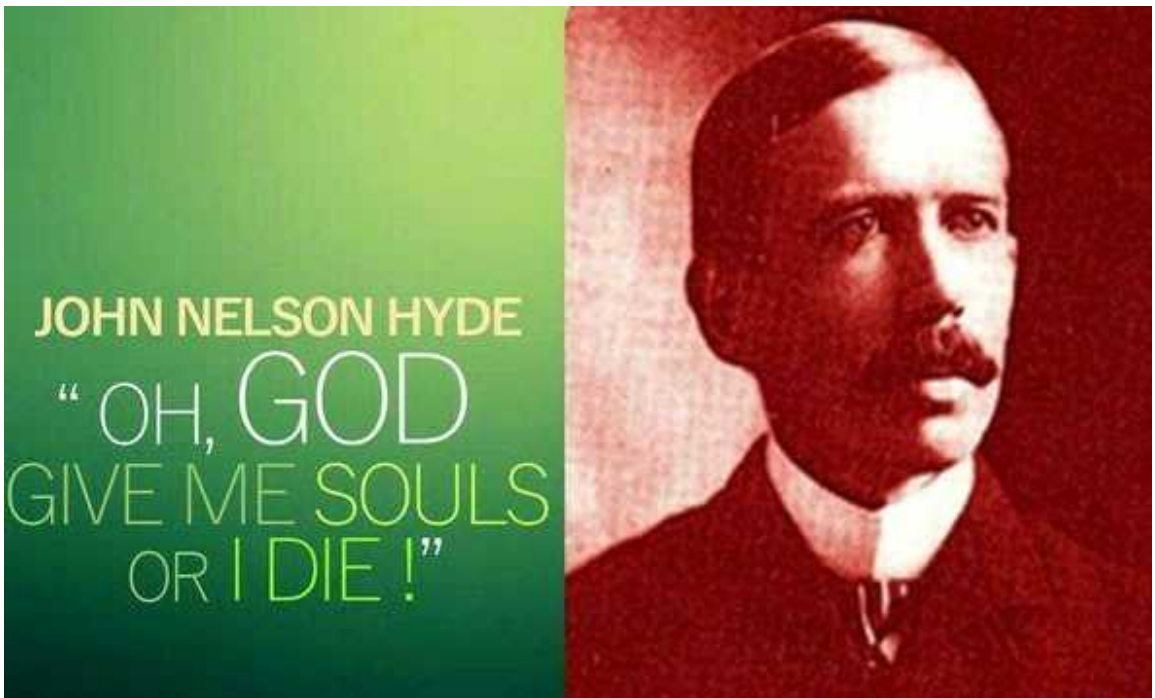
김종일 교수

1988년부터 지금까지 36년째 무슬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하고 있다. 현재는 아신대학교(ACTS) 선교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국내 이슬람권 선교사 네트워크인 M-NET KOREA(일명, 열무김치) 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아울러, 터키어 권선교회와 종족선교회 대표로서 현재까지 경기 북부지역에서 무슬림 선교 전담교회를 개척하여 무슬림 배경을 가진 이주민과 난민들을 섬기고 있다.

## 선교사 존 하이드의 생애와 사역

신경수 교수

기도의 사람 하이드로도 알려진 선교사 존 하이드(John Nelson Hyde, 1865-1912)는 인도, 특히 편잡 지역에서 수많은 부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부흥의 정확한 수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가 사역 내내 여러 부흥에 관여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도와 중보에 대한 그의 헌신은 이러한 영적 각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이드의 노력은 그가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준 연례적으로 개최되었던 시알코트 컨퍼런스에서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이 모여 부흥을 위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주요 행사였습니다. 이 모임의 영향은 엄청났으며, 수십, 수백 명의 일꾼들이 재빨리 움직여 봉사에 적합하게 되었습니다.

## I. 하이드의 생애와 사역

존 하이드는 그의 삶과 사역으로 인도의 기독교 공동체에 깊은 영향을 미친 놀라운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삶과 사역의 중요한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초기 생활과 소명

그는 1865년 11월 9일,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장로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매코믹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설교자가 되고자 하는 형의 꿈에 영감을 받았으며, 선교 사업에 대한 강한 소명을 느꼈습니다. 존 하이드는 미국 장로교회에서 선교사로 인도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장로교 목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선교 사업에 대한 그의 소명은 이 교단 내에서 키워졌습니다.

### 2. 인도에서의 선교 사업

하이드는 1892년 편잡 지역에서 설교하기 위해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문화적 차이와 지역 사회의 저항을 포함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그의 헌신을 통해서 하이드는 이 어려움에 맞서 수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흥을 구했습니다.



BIBLE SCHOOL AT PANDITA RAMARAI.

인도 편잡 지역에서의 존 하이드의 사역은 기도, 중보, 영적 부흥 추구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으로 특징지어집니다.

하이드는 편잡 기도 연합과 또 매년 열리는 시알코트 컨퍼런스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편잡 기도 연합과 시알코트 컨퍼런스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이 부흥을 위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주요 행사가 되었습니다.

하이드는 광범위하게 설교하고 가르쳤으며, 선교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능력을 얻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도 기독교인들과 긴밀히 일하며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지원했습니다. 존 하이드가 시작한 교회나 회중의 정확한 수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영향력과 사역은 편잡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이드의 사역은 많은 지역 신자와 선교사에게 영감을 주어 수많은 교회가 형성되고 기존 교회가 강화되었습니다.



**Volunteer workers at the 1912 Convention**

하이드는 1912년 2월 17일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기도와 부흥의 유산은 인도의 기독교 공동체에 계속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기도, 중보기도, 그리고 그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에서 영적 부흥을 촉진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하이드의 삶은 희생, 겸손, 그리고 기도와 중보에 대한 깊은 헌신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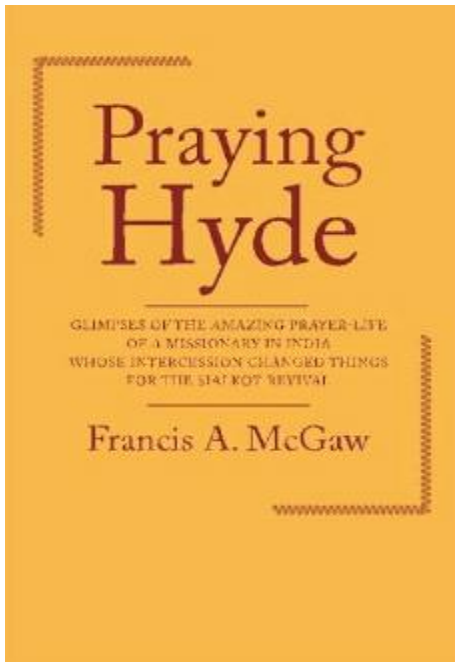
### 3. 유산과 영향

하이드의 기도와 중보에 대한 헌신으로 인해 편잡 지역에서 여러 차례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정확한 수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영향력은 상당했습니다.

하이드의 리더십 하에 열린 시알코트 컨퍼런스에서 수백 명의 일꾼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빠르게 훈련되어 봉사에 적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과 업적은 인도의 기독교 공동체와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선교사와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어왔고 지금도 주고 있으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와 신앙의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편잡에서의 하이드의 사역은 기도에 대한 그의 깊은 헌신, 기도 모임을 조직하는 그의 리더십, 그리고 부흥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특징지어집니다.

## II.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존 하이드



존 하이드는 기도에 대한 그의 놀라운 헌신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부흥이 진지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종종 30일 밤낮으로 기도했고, 때로는 36시간씩 연속으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중보기도에 대한 그의 헌신은 그의 사역에서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는 편잡 기도 연합과 시알코트 컨퍼런스에 깊이 관여하여 기도 세션을 이끌었습니다.

하이드의 끊임없는 기도 생활은 그의 신앙과 인도에서 부흥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데 대한 헌신의 증거였습니다.

### III. 시알코트(Sialkot) 컨퍼런스

존 하이드가 설립한 시알코트 컨퍼런스는 인도 편잡 지역의 기독교 일꾼들이 매년 모이는 모임으로, 부흥을 위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시알코트는 하이드의 사역 당시 인도 지역에 속해 있었으나 현재 파키스탄 편잡주의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이크 날라(Aik Nala, 에이크 강) 바로 북쪽, 잠무 언덕(Jammu Hills) 남쪽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철도로 와지라바드(Wazirabad)와 잠무(Jammu)와 잘 연결되어 있으며, 도로로 라호르(Lahore)와 루자란왈라(Gujranwala)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20세기 초 존 하이드 사역 당시에 시알코트는 이미 중요하고 성장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시기의 정확한 인구 수치는 쉽게 알 수 없지만, 이미 이 지역의 중요한 도시 중심지로 인식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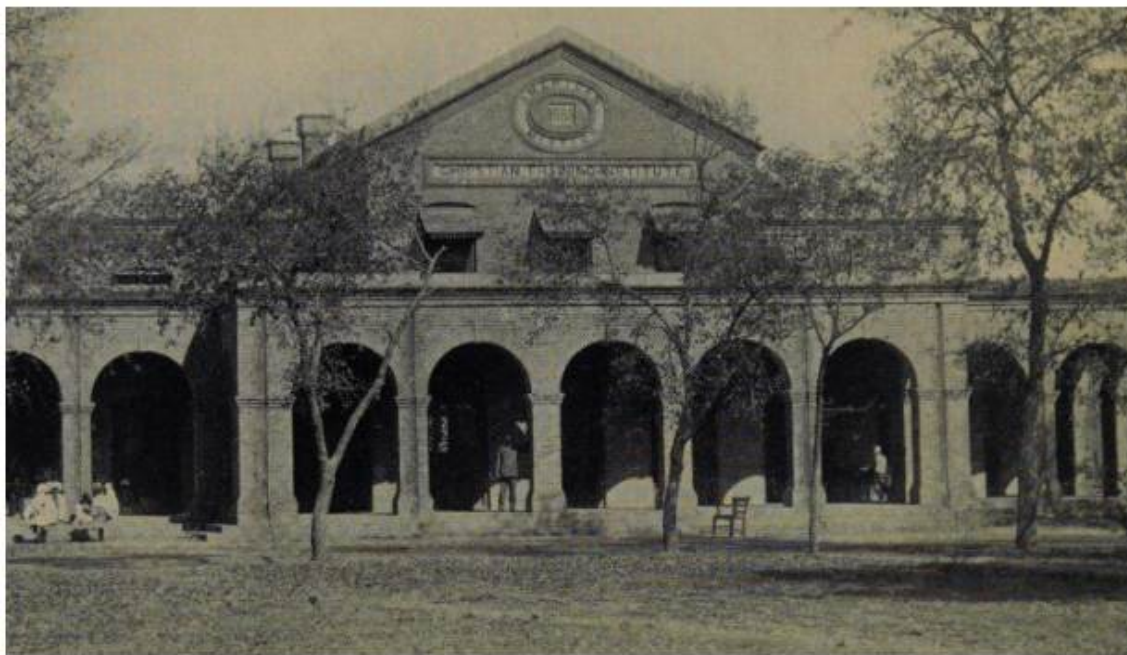
이런 지역적 중요성과 더불어 당시 시알코트 컨퍼런스는 영적 각성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를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1905년부터 1912년까지 총 8년간 열렸습니다.

각 컨퍼런스에는 선교사와 지역의 토착 기독교인을 포함한 수백 명의 기독교 종사자가 참여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직접 발생한 개종의 정확한 수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이드가 편잡 지역에서 행한 광범위한 사역을 통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강렬한 기도, 금식, 예배로 특징지어졌고, 하이드는 종종 긴 시간을 기도에 보내며 영적 각성을 위해 신을 찾았습니다. 이 모임의 영향은 컸고, 이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가 상당한 영적 부흥과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 IV. 편잡 기도 연합(Punjab Prayer-Union)

오늘날 편잡 지역은 인도와 파키스탄 두 나라에 걸쳐 있는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존 하이드 선교사가 사역할 당시에 그곳은 인도에 속해 있었습니다. 1947년 인도가 분할될 때, 편잡 지역은 동 편잡(인도)과 서 편잡(파키스탄)으로 나뉘게 되었으며, 인도에 속한 편잡 주는 23개 지방, 파키스탄에 속한 편잡 주는 41개 지방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First three Sialkot Conventions were held  
in the Christian Training Institute Hall.**



Church used as a prayer room during the conventions

이 넓은 지역의 복음 전파를 위해 만들어진 편잡 기도 연합은 1904년에 존 하이드가 인도 편잡 지역의 기독교인 일꾼들 사이에 기도와 중보의 정신을 기르기 위해 주도한 이니셔티브였습니다. 하이드는 편잡 기도 연합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 연합은 기독교 선교사들과 토착 신자들을 모아 기도와 중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기도 연합은 기독교 선교사와 토착 신자들을 모아 부흥과 영적 각성을 위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기도 연합의 주된 목표는 이 지역의 부흥과 영적 쇄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이드는 부흥이 진지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이 연합은 기도와 중보에 헌신한 서양 선교사와 인도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기도 연합의 회원들은 매일 기도할 특정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종종 장시간의 기도모임과 금식을 위해 모였습니다. 이 연합은 회원들 사이에서 보다 깊은 영적 삶을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시알코트 컨퍼런스 기간 중에 발생한 영적 각성에 기여했습니다. 하이드의 리더십과 기도에 대한 헌신은 편잡 기도 연합의 성공에 핵심이었습니다. 그의 모범은 많은 사람들이 열렬한 기도에 동참하여 이 지역의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신경수 교수

영국 University of Aberdeen (Ph. D, 조직신학). 밀라드 에릭슨의 『복음주의 조직신학』 외 다수의 책을 번역 출판하였다. 장신대, 계명대, ACTS, 서울장신, 서울여대에서 강의를 하였고, 열린문선교회를 창립하여 활발한 선교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 순교의 영성

### 한국교회 순교자 5인을 중심으로(1)

나주아 교수

한국기독교 순교자들이 남긴 믿음의 유산과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에 대해서 한국의 순교자 5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한국기독교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 씨앗을 뿌렸으며,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쳤습니다.

특히 20세기 초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격동의 시절을 지나오면서, 한국 교회는 절대적인 신앙의 결단을 요구받았고, 그 결과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순교자들은 단순히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았고, 삶 전체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의 모습으로 드렸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살아간 증인들이며, 그들의 유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성경에서는 고난 중에도 지켜야 할 믿음과 신앙의 본질에 대한 수많은 구절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순교자들은 이 세상의 삶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여 가신 고난의 길을 순교자들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 실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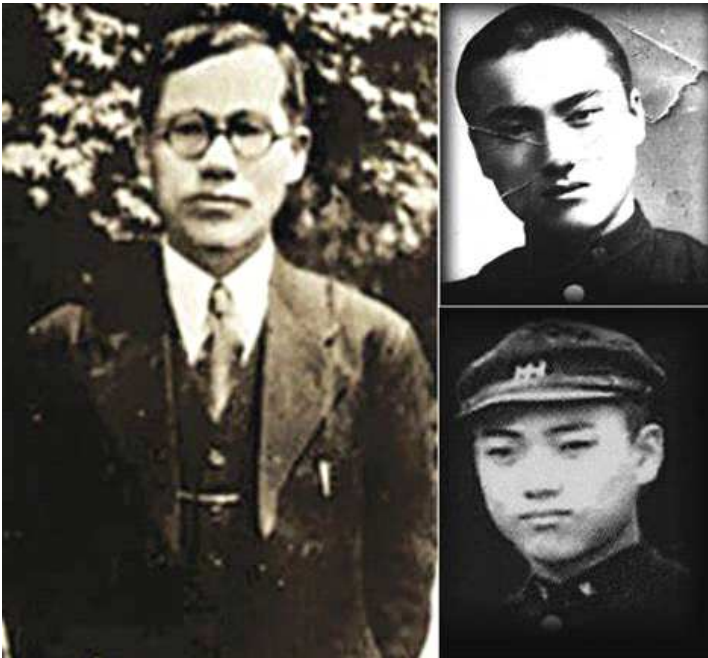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따랐으며,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아깝지 않게 드린 산 제물과도 같은 예수의 길을 걷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거룩한 사랑의 죽음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임을 깨달아, 자기 죽음을 통해 복음의 참된 가치를 전했습니다. 한국 교회 순교의 역사 속에서 순교자들은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삶을 사는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결단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의 순교는 오늘날에도 신앙적 정절을 일깨워 줍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마저 용서하며, 살인자인 그를 양아들 삼아 사랑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한 뜨거운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회개와 부흥 운동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어려운 전남의 신안에 있는 섬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기까지 헌신했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삶과 순교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씀대로 삶과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 또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영혼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부르심임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순교자들은 자기 몸과 생명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으며, 그들의 희생은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신앙을 굳건히 하는 데 기초가 되었습니다.

순교자들이 보여준 신앙의 본질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나 권력에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길은 나의 생명까지도 드려야 하는 길임을 너무도 잘 알았기에,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부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순간순간을 그렇게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영광스럽게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순교는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순교의 영성은 십자가 신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교리상으로 순교는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부터 중요한 신앙적 가치를 지녔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은 순교를 “그리스도를 위한 최고의 헌신”으로 이해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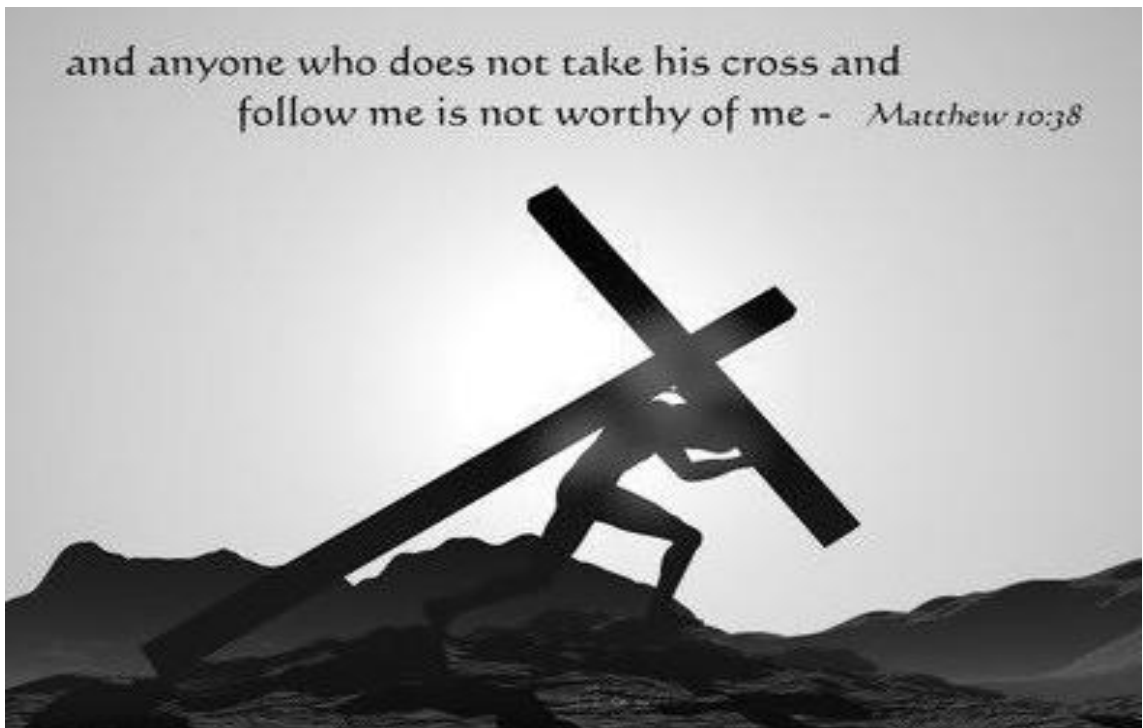


옥스포드 벨리올 칼리지 앞 거리에 있는 순교자의 화형식이 거행된 장소  
사진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usiro33/90182692725>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순교는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 헌신을 의미합니다. 순교자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의 삶을 초월하는 길을 선택했으며, 이로써 신앙이 단순히 관념이 아닌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결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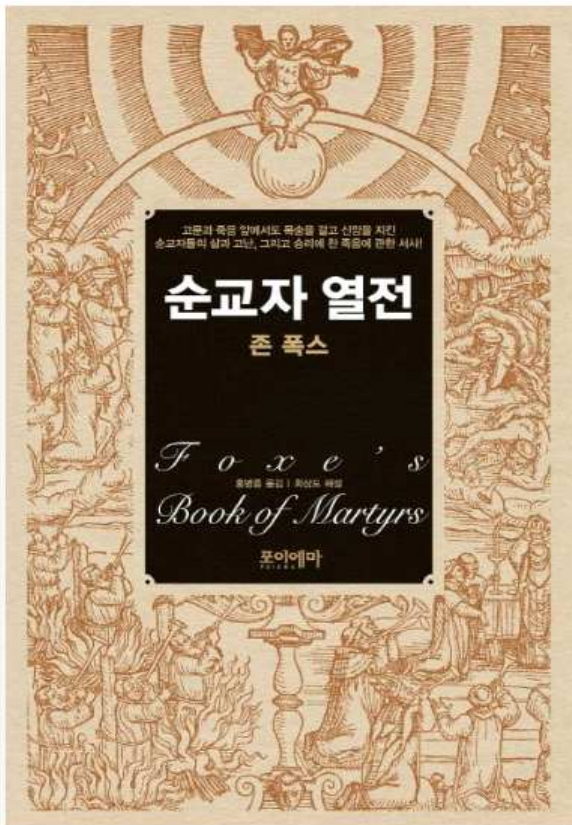
순교자들의 신앙적 결단은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을 본받은 것이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은 생애를 통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지키셨으며, 이는 신앙의 절대성을 표현하는 교리적 실천이었습니다. 순교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충성과 사랑을 표현하며, 영혼의 깊은 헌신과 사랑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신학적으로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행위로 이해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교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양아들 삼으며, 용서하고 사랑한 모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순교적 영성의 본을 보여준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현시대에 더욱 강조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의 생애를 통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위해 순교를 택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는 말씀을 삶과 죽음으로 증언하셨습니다.

순교는 단순한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를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의미하며,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몸소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순교는 구약과 신약에서 중요한 믿음의 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순교적 신앙을 가진 이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히11:38)”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순교자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순교는 하나님과의 절대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결과입니다.



결국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성령님에  
따른 순종의 삶을 살며, 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산 결과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 나타난 성령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을 통한 믿음의 고백은 결국 그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 문준경 전도사님이 신안의 섬들을 돌며, 어려운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공산주의의 압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그녀의 삶은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온전히 실천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는 고난과 순교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이어지는 시기에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성도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순교의 영성은 현대 성도들에게도 강력한 영적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글을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익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문준경 전도사님을 통해 다시 부흥하는 한국 교회공동체와 부흥하는 선교의 현장에 있는 교회공동체를 꿈꾸며, 회복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호에 2편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나주아 교수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철학박사

하베스트 선교대학원 교무처장으로 있으며

‘어? 성경이 읽어지네’를 선교사연장교육원에서 강의 하고 있다.

## 네팔에서 마지막 삶을 다한 민영미 선교사를 추모하며

김광성 선교사

2020년 11월 15일 띠하르 명절의 첫날이었다.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려 국가 간의 왕래도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네팔은 감염자 숫자가 적게 나와 그래도 추석 명절인 더사인과 띠하르를 즐기고 있었다. 그날 나와 민영미 선교사는 오토바이를 타고 티미에 있는 밧 바프니 백화점에서 장을 보았다. 일주일 후 체리콧에 있는 농아 학교 어린이들에게 줄 과자와 사탕을 사기 위해서였다.



네팔에서 오토바이는 나와 민 선교사에겐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다.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를 타는 기분도 좋아서 오토바이를 타는 것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장을 본 후 곧바로 바네파에 있는 집으로 향했다. 오후 1시쯤에 박터풀을 지나 언덕 왼쪽에 큰 시바 신상이 있는 상가

(Sanga)에 다다를 무렵이었다. 카트만두로 향하는 우측 차선은 내리막길로 차가 밀리고 있었고 바네파로 향하는 왼쪽 차선은 막힘이 없어 차들이 원활히 통행하고 있었다. 나도 시속 25km 정도의 속력으로 앞의 차들과 속도를 맞춰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결코 빠른 속도가 아니었다.



갑

자기 우측 차선에서 버스 뒤에 있던 지프가 내 차선으로 튀어나왔다. 위험을 느낀 순간 나는 벌써 길바닥에 엎드려져 있었다. 고개를 들고 민 선교사를 찾았다. 내 왼편에 나와는 반대 방향으로 도로 끝자락에 누워 있었다. 기어가서 민 선교사를 흔들었다. 의식이 없었다. 그런데 항상 쓰고 있는 헬멧이 없었다. 차와 부딪혀 날아오르며 헬멧이 벗겨진 것 같았다. 머리를 살펴보니 우측 귀 위쪽이 찢어져 피가 나고 있었다. 손수건을 꺼내어 피를 닦으며 정신을 차려보라고 말해도 반응이 없었다. 출혈은 멈추지 않아 손수건을 흠뻑 적셨다. 주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구급차를 불러 달라고 소리쳤다.

상가(Sanga) 언덕 초소에 항상 근무하고 있던 경찰이 와서 교통을 통제하며 넘어진 내 오토바이도 세워서 길가에 세워놓았다. 경찰이 세워놓은 내 오토바이는 앞 헤드라이트가 깨져 있었고 뒤에는 장을 본 가방이 매여져 있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 나와 내 앞에 가던 두 대의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온 짚에 부딪혀 앞서가던 오토바이는 튕겨 나와 길 가던 행인의 다리를 다

치게 했다고 들었다. 아무도 병원에 간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경찰이 빈 택시를 세워 삼십 분 거리에 있는 돌리켈 국립 병원으로 후송을 부탁했다. 나는 내 몸을 살펴볼 여유가 없었다. 왼발이 불편하여 걷기가 힘들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차에 올랐다. 상가(Sanga)에서 돌리켈 병원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께 줄곧 기도하며 내 무릎에 누워 있는 민 선교사는 곧 깨어나리라 생각했다.



돌리켈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응급실 의료진 한참 꾸물대며 호흡과 맥박을 재더니 풍선 같은, 손으로 쥐어짜야 하는 인공호흡기를 민 선교사 코와 입에 씌우고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자력으로 호흡이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사고 때부터 상황이 심각했던 것을 나는 그제야 느낄 수 있었다. 사고가 난 지 한 시간 만의 상황이었다. 의료진은 오늘이 피하르 명절이라 머리(뇌) 스캔을 할 사람이 없다고 하며 카트만두에 있는 노르빅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 노르빅 병원에 연락하여 의료진을 대기 시켜 놓겠다고 했다. 눈앞이 캄캄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 두 시간 거리의 카트만두로 가라고 ...

민 선교사는 풍선 같은 인공호흡기와 함께 병원 구급차에 실려 다시 반대 방향인 카트만두로 향했다. 구급차 차 안에는 아무 시설이 없다. 들것에 실린 환자를 올려놓을 수 있는 단상 같은 궤짝만 하나 놓여 있어서 그 위에 환자를 들것째로 올려놓고 모깃소리 같은 사이렌만 울리고

카트만두 노르빅 병원으로 달렸다. 동행한 병원 간호사인지 알 수 없는 남자 한 명이 풍선 호흡기를 움켜쥐기를 반복하며 달렸다. 커브를 돌 때마다 이리저리 몸이 쏠리는 민 선교사를 붙잡고 하나님께 살려 달라고 부르짖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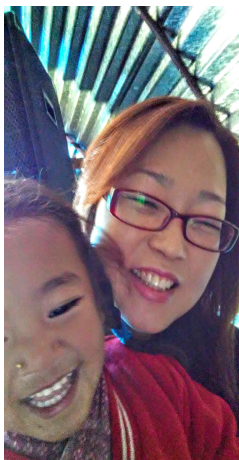
오후 4시 40분경에 노르빅 병원에 도착하였다. 집에서 명절을 보내고 있는 뇌 수술 전문의가 호출받고 병원에 나와 대기하고 있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스캐너를 찍었다. 전문의가 나를 불렀다. 스캐너 사진을 가리키며 뇌 좌우 양쪽에 이미 피가 상당히 고여 뇌를 압박한 지 한참 되었다고 했다. 양쪽에 피가 터진 이유는 한쪽에 심한 충격이 있으면 충격 후 반대편으로 다시 충격이 와서 양쪽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설명 안 해도 좋으니까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수술하라고 언성을 높였다. 의사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사고 후 6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수술은 두 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했다. 나는 원발이 부어올라 걷기가 불편했다. 평소에 가까이 알고 지내던 이윤자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리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카트만두 한인교회의 담임을 맡고 있는 어준경 목사님을 비롯하여 최요한 목사님 등 여러 선교사님이 병원에 오셔서 기도하며 수술 결과를 기다렸다. 의사가 아무리 절망적인 말을 해도 선교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믿으며 하나님의 치료 손길을 기대했다. 수술 후 집도의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뇌 속에 이미 굳은 피를 상당히 제거하고 수술은 잘 마쳤다고 했다. 민 선교사는 제대로 된 인공호흡기를 꼴은 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그날 저녁 민 선교사의 사고 소식은 카트만두 한인교회와 어부회 단독방에 올려져 합심 기도 제목이 되었다. 많은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가 올라왔다. 그날 밤 돈을 가지러 집에 와야 했다. 첫날 병원비가 이천 불 가까이 나왔다. 최요한 목사님이 늦은 밤에 바네파 집에 바래다주었다. 집에 오는 길에 사고 지점 상가(Sanga)에 들러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내 오토바이에 매달려 있는 장 가방도 찾아왔다. 집에 도착하여 민 선교사의 뉴욕 파송 교회를 비롯한 기도 후원회와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한국의 민 선교사 어머니와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상황 그대로 알렸다. 한국과 미국에 있는 가족들, 기도 후원회 그리고 네팔의 많은 선교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었다.

이튿날, 나의 왼발은 까맣게 부어올랐고 두 팔꿈치와 무릎은 모두 까져 있었으며 왼손은 무엇을 짚을 수가 없었다. 날이 새자 비상금을 챙겨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왔다. 머리에 붕대를 감싼 채 호흡기를 대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민 선교사와 마주했다. 밤새 호전도 악화도 없이 호흡기에 의존하는 민 선교사는 눈에 불빛 반응도 없이 그대로였다. 옆에 앉아서 손발을 주무르며 지난 추억을 떠올리며 얘기를 하였다.



민 선교사는 2016년 9월 15일 뉴욕의 한울림 교회의 단기 선교팀 리더로 네팔에 오면서 나와서 인연이 시작되었다. 뉴욕은 내가 35년을 보낸 제2의 고향이다. 민 선교사 또한 뉴욕에서 오래 살아 우리의 대화는 서로 통하는 것이 많았다. 민 선교사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교회의 싱글맘 목녀를 하면서 선교에 관한 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단기 선교의 준비 과정부터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알게 되었다. 8일간의 단기 선교를 통해 담임 목사를 비롯한 팀원들과 함께 네팔에서의 저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유난히 질문이 많았던 민 선교사는 스스로 네팔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단기 선교를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간 민 선교사에게서 일주일 후 연락이 왔다. 담임 목사와 상의하였는데 선교사 파송을 받아 네팔에 오겠다고 했다. 선교사로서의 부름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해 오던 것이었으며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10개월 후 민 선교사의 주변은 네팔로 떠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었다. 아들도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미리 취직되어 마음 놓고 떠나올 수가 있었다고 했다. 2017년 8월에 민 선교사는 뉴욕 한울림

교회의 네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드디어 네팔에 선교사로서 첫발을 디뎠다.

민 선교사는 처음부터 네팔을 좋아하였다. 네팔 날씨도 무척 좋아하였고 특히 네팔 사람들을 좋아했다. 나의 사역지를 같이 다니며 네팔 현지인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며 행복해했다. 내가 지난 3년간 봉사했던 체리콧 농아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의 엄마와 같았다. 그 사랑으로 농아 학교 교장과 어린이들 모두 하나님을 영접하여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수화를 포함한 모든 언어의 장벽을 초월했다. 체리콧과 바네파에서는 로칼 교회 개척에 애를 쓰며 새로 개척한 교회에 많은 지원과 사랑을 쏟았다. 민 선교사의 열정은 나를 잠시도 쉬게 하지 않을 만큼 열심이었다.

바네파 집 동네에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잘 쓰지 못하여 햇볕에 자주 나와 있는 멍걸 마야라는 처녀가 있었다. 몇 번 본 후로 그녀에게 다가가 친해지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돌리켈 병원에 데려가 치과 치료부터 간질약 처방까지 6개월을 섬기고 치료했다. 바네파에서 돌리켈까지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내가 오토바이로 민 선교사와 멍걸 처녀를 한 사람씩 두 번 왕복 해야 했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두 번을 왕복해야 했다. 코로나로 일 자리를 잃어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찾아다니며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경제적으로도 힘닿는 데까지 도왔다.



내가 이따금 모아두는 비상금이 남아나질 않았다. 가끔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내가 배워야 하는 모습이라고, 그런 사람을 옆에 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 나면 기쁨이 충만했다.

민 선교사는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사랑을 베풀 곳을 찾아 다니는 사람 같았다.

10개월 후 2018년 6월 23일 나는 민 선교사에게 청혼하였다.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라고 설득하여 민 선교사 승낙을 받았다, 우리는 곧 약혼하였다. 민 선교사의 과년한 장녀가 뉴욕에서 혼기를 앞두고 있어서 우리의 결혼식은 딸 결혼 이후로 하기로 하고 우선 약혼했다. 하나님께서 혼자 사역을 감당하던 저를 어여삐 보시고 내려 주시는 상급으로 여기고 너무너무 감사하였다. 그 무렵 이에신 선교사의 크리스천 스쿨이 세워지고 민 선교사는 일주일에 3일씩 학교에 들어가 아이들에게 영어와 음악을 가르치며 투병 중인 이에신 선교사에게 음식을 만들어 정성껏 섬겼다.

병원에 누워 있는 민 선교사에게 지나온 추억들을 차례차례 기억해 가며 혼자 묻기도 하고 대신 대답도 해 가며 가능한 한 대화를 많이 하였다. 그러나 민 선교사는 반응이 없었다. 이를 뒤의사는 뇌사 판정을 내렸다. 그래도 하나님의 냄새 나는 나사로를 일으키신 능력을 믿고 기도 후원회의 더 간곡한 기도 요청을 했다. 한국과 미국에 있는 기도 후원자 모두 일시에 함께 기도 드리는 시간을 수요일로 정했다. 네팔 시간으로 밤 3시 45분, 한국 시간으로 아침 7시, 뉴욕 시간으로 저녁 6시에 함께 기도드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지막 희망의 끈 이었다.



많은 한인교회 선교사님이 병원을 찾아와 나의 식사를 나르고 기도하며 위로하였다. 그렇게 일 주일이 지났다. 미국의 딸과 아들이 코로나로 어려운 절차를 마치고 어머니의 임종이라도 보려고 네팔로 날아오고 있었다. 자녀들의 네팔 도착 하루 전 11월 22일 일요일 오전 11시 약물에 의지한 심장 박동이 멈췄다.

의료진의 심폐소생이 끔찍할 정도로 거칠었다. 지켜 볼 수가 없었다. 그만하라고 소리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고 민영미 선교사는 그렇게 네팔 선교지에서 마지막 3년 3개월의 남은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의 나이 5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 김광성(Peter Kim)선교사

뉴욕 장로교단의 평강교회에서 파송되어 2014년 11월 네팔에 들어왔다. 체리콧의 Modern Nepal School에서 봉사 사역으로 시작해 지금은 빛과 소금 크리스천 학교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바네파 지역 교회와 협력해 지방 지역 교회 개척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베스트국제사역원 선교사연장교육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1. 하베스트국제사역원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재충전, 재교육, 재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하베스트국제사역원을 섬기는 스텝과 교수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3. 하베스트국제사역원 치앙마이 선교센터가 완공되어서 많은 선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4. 31회 세계선교컨퍼런스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재충전과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매월 발행되는 The Harvest 소식지를 더 멋지게 꾸며 주실 편집 디자이너를 찾습니다.
- 좋은 강의로 선교사의 지성과 영성을 넓고 깊게 해 주실 교수님을 찾습니다.
- 선교사연장교육원 한국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 주실 손길을 찾습니다.

문의 [runtothere12@gmail.com](mailto:runtothere12@gmail.com) 윤기철 원장

하베스트국제사역원 선교적응훈련원의 완공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2층 숙소 건축비 후원(서부중앙교회)



방문에 기증단체의 이름이 붙은 방패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아치형의 창문이 있는 예배실로  
사용될 3층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베스트 국제사역원 선교적응훈련원 건축을 위한 후원 요청

1층(사무실, 도서관, 세미나실)과 2층(숙소12실)이 완공되었습니다. 2층 숙소 각 방에 들어갈 에어컨, 침대, 책상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1개의 방마다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직 2층에서 3층으로 오르는 층계와 3층 예배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를 위한 공사비도 필요합니다. 공사비가 잘 마련되도록 기도와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베스트 선교사적응훈련원 완공을 위한 건축 후원

계좌 \_ 460 21 0196 768 국민은행 이성상